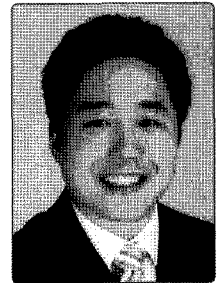


중국의 역습

짜통 이미지 벗고 지재권 대국 꿈꾼다

유성원

현) 지심P&COMPANY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전자부 변리사
 중국 북경 MING&SURE
 지식산권대리 유한공사 한국변리사
 유미특허법인
 Outbound팀 변리사



요즘 들려 오는 지재권 관련 뉴스들을 보면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뛰어난 선진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의 다국적 대형 기업들이 중국의 로컬 기업들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특허침해가 확정되서 몇 백억씩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는 것이다.

아마도 뉴스를 쓴 기자가 주어와 목적어를 혼동해서 기사를 잘못 썼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로컬 기업들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을 것이지 중국의 로컬 기업이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인다고는 쉽게 생각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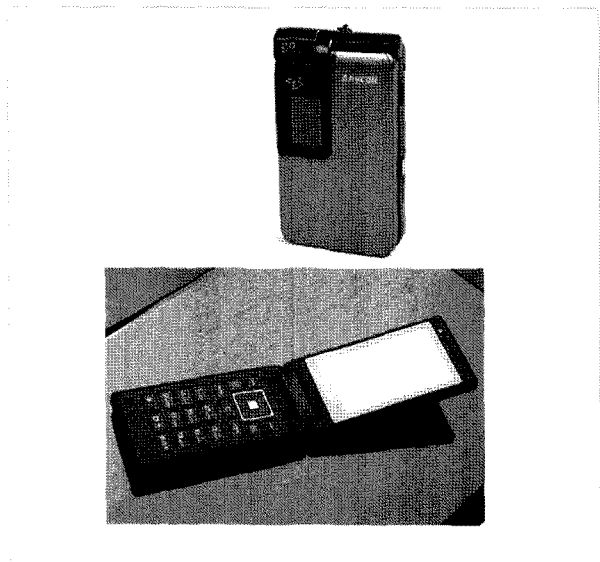
하지만, 기자는 기사를 잘못 쓰지 않았고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했다.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로컬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특허 로열티와 손해배상을 중국 로컬 기업에게 물어주고 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 기업들의 역습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로컬 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그 기세가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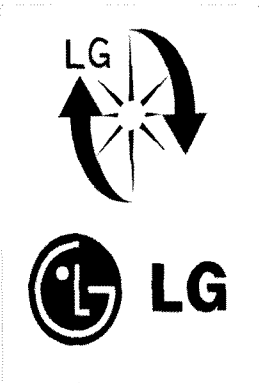
해질 전망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중국의 더신(德信手机技术)이라는 휴대폰 설계 회사로부터 베이징 제2중급 인민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당했다. 듀얼심카드를 이용하여 GSM, CDMA 방식을 상호 변환하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술에 관한 발명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항저우 인민법원에서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화리통신(华立通信)에게도 제조 당해 패소한 적이 있다.



LG산전은 북경란광(北京藍光)엘리베이터사로부터 상표권(LG)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 됐으며 전세계적으로 저명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전기용품 제조업체 슈나이더는 중국의 정타이(正泰)사로부터 중국 IP 소송 역사 상 최대 손해배상금 배상이라는 봉변을 당했다. 2007년 저장(浙江)성 원저우(温州) 인민법원에서 슈나이더가 중국의 정타이(正泰)사에게 약 3억 3천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



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슈나이더사가 항소는 했으나 결국 판결액의 절반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2008년 중국의 우한징위엔(武汉晶源)환경공정유한공사가 일본의 FUJIKASUI사를 상대로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고 푸지엔(福建)성 인민법원에 제소하였고, FUJIKASUI사는 약 5,0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패소하였다.

또, 2010년에는 ‘아이귀저(爱国者)’란 브랜드로 MP3플레이어 등을 생산하는 아이귀저(爱国者)디지털사는 베이징 인민법원과 시안 인민법원에 각각 HP와 도시바를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됐다.

지재권에 눈 뜬 중국

이처럼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기업의 특허 소송이 증가한 것은 바로 중국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인들도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중국 정부의 지재권 강화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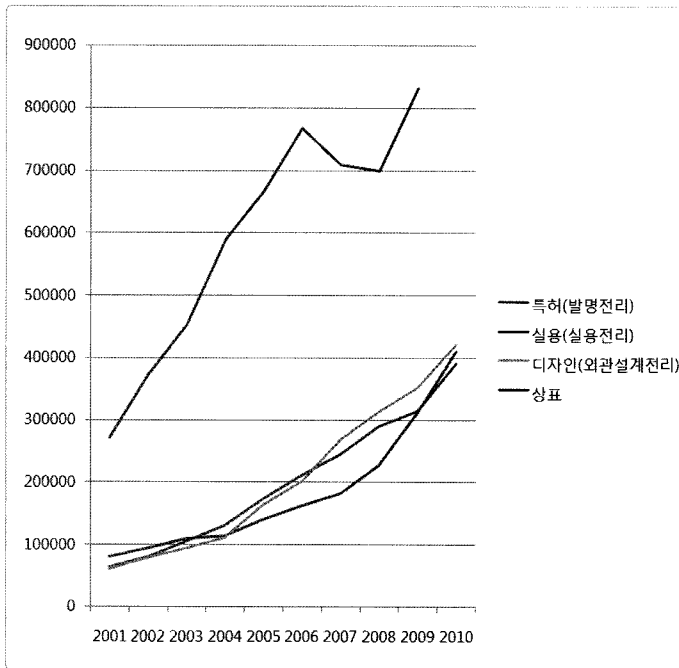
중국은 5개년마다 국가 경제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는데, 이미 “제11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2006~2010)”에서 국가 차원의 지재권 강화 전략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 <국가지식산업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2008>을 수립하여 실천해 오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전리법 및 상표법을 선진화하여 개정하고, 지재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며, 지재권 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특히, 2008년 <국가지식산업전략강요>에 따르면 자국 기업의 해외출원 비용을 3~5개국까지 전액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정책은 현재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실제 수행되어 중국의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특허출원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 변화는 중국 내 지재권 출원 통계만 살펴봐도 당장 체감할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연평균 약 18%의 지재권 출원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국인(기업포함)에 의한 출원량은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상표를 제외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

원만 합쳐도 이미 2009년부터 100만 건을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지재권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연도별 출원량 증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특허	63204	80232	105318	130133	173327	210490	245161	289838	314573	391177
실용	79722	93139	109115	112825	139566	161366	181324	225586	310771	409836
디자인	60647	79260	94054	110849	163371	201322	267432	312904	351342	421273
상표	270417	371936	452095	587925	664017	766319	707948	698119	830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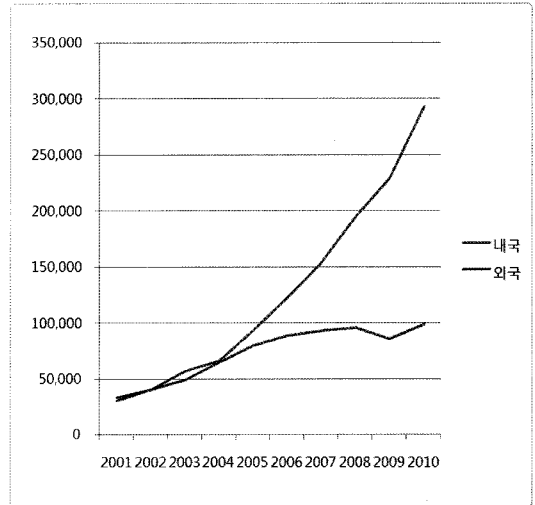


〈중국의 내국인/외국인의 특허출원량 비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국인	30,038	39,806	56,769	65,786	93,485	122,318	153,060	194,579	229,096	293,066
외국인	33,166	40,426	48,549	64,347	79,842	88,172	92,101	95,259	85,477	9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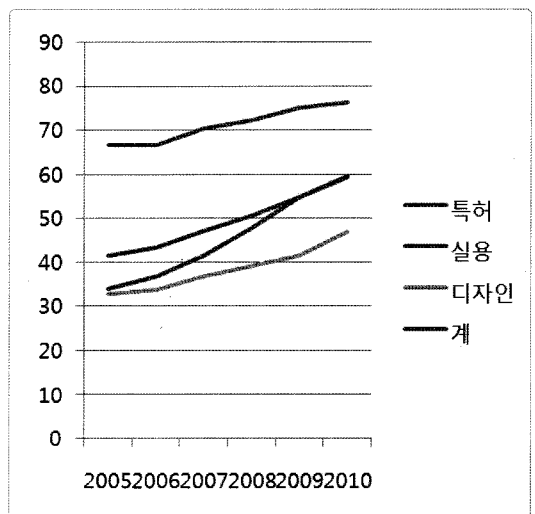
특히, 주목할 것은 중국 내국인의 출원량이다. 발명특허의 경우 2010년 중국 내국인의 출원은 2001년에 비해 거의 10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내국인 출원에서 직무발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기술 발전이 개인 중심의 소발명에서 기업 중심의 수준 높은 중발명/대발명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로 옮겨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국인 출원 중 직무발명의 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특허	66.6	66.6	70.3	72.2	75.2	76.3
실용	33.9	36.7	41.5	47.8	54.9	59.5
디자인	32.8	33.7	36.9	39.1	41.6	47
계	41.5	43.3	47.1	50.8	55	59.4



이러한 통계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특허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와 ZTE는 이미

세계 10위 안에 드는 PCT 출원 filer들이며, 최근에는 유럽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여 지재권 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 특허 뿐만 아니라 지재권의 메인 그라운드인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권을 수집하며 지재권 강자로서의 힘을 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특허 로열티로 지불하는 금액이 연평균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 종속적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중국 정부와 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변화가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우리나라는 중국과 가장 직접적인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주고 받고있는 나라이다. 중국 지재권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 지재권 관련 세미나와 교육 등은 중국의 지재권 제도 파악, 중국의 짝퉁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짝퉁에 의한 지재권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아직 갖추기도 전에 중국 로컬 기업들은 이제 오히려 지재권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 진형은 물론이거니와 아직 수비 진형은 신경도 못쓰고 있는 판국에 상대방이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짝퉁 기업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중국 로컬 기업에게 지재권 침해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R&D) 수준, 지재권 전략 수준에서 중국 기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지금까지의 자만심은 버려야 한다. 중국 기업들의 R&D 역량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고 그 역량을 지재권으로 연결시키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중국 특허 분석, 중국 특허 선행기술 조사 등이 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 특허 출원을 미국 출원의 부속 세트 중에 하나로 생각하여 중국 현지대리인의 처리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소극적인 전략에서 벗어나 중문 명세서 번역 품질 관리, 국내 대리인에 의한 현지대리인의 OA 의견 검증 등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 거의 모든 경제/문화/정치/사회 영역에서는 중국어가 영어 못지 않게 중요한 언어가 되었고 중국어 능력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들이 상당수 양성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IP업계에서는 일본어에 밀려 중국어가 생소한 외국어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 지재권 관련하여 신뢰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가 여전히 거의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경제의 강자가 된 것처럼 지재권 분야에서도 미국에 버금가는 강자가 될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지재권 업계도 기존의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지재권 전략의 틀에서 벗어나 중국을 고려한 지재권 전략 새 판 짜기에 돌입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지재권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지재권 전쟁에서 중국에 밀려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될지도 모른다. 2011. 7 |